



장수소방서, 판문마을서 '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5일 장수를 노하리에 위치한 판문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화재 예방을 위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철저한 사후 관리다. 판문마을은 지난 2013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소방서는 농촌 지역 특성상 초기 화재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세대의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 활동도 더해졌다. 장수소방서는 각 가정에 필요한 기초 소방시설과 위문품 및 생활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동규 장수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장수군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든든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고산농협, 조합원 대학생 자녀·농촌 희망 장학금 전달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24일, 고산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및 농촌 희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조합원 자녀 대학생 19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씩 총 1,900만원과 농촌 희망 장학금 6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고산농협의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은 1996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901명에게 6억 39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촌 희망 장학금은 다문화가정의 교육비 경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2세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하여 (사)농협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완주=열재복 기자

고창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폭행 근절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소방활동을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주취 상태라도 감경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적용이 강화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의료·관광 결합... '글로벌 환자' 유치 확대

전북대병원-전북문화관광재단, 외국인환자 유치 MOU 체결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5일 전북대병원 본관 가운데홀에서 협약을 열고, 지역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양종철 병원장과 이경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공동 발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의료코디네이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된 의료 역량과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의료관광 시너지 창출에 나설 방



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은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철 병원장은 "우수한 의료 역량과 전북의 문화관광 자원이 결합된다면 의료관광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사고 위험지역 선제 정비 추진

남원소방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고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간담회를 개최해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남원시 건설과, 산림녹지과 등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남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숨은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착한 가게 33번째 선정... 현판 전달식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3월 24일 '일등병최혜집 부대찌개'는 지난 3월 24일 '일등병최혜집 부대찌개' (대표 최육자)를 금동 착한 가게 33번째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일등병최혜집 부대찌개는 부대찌개의 핵심인 김치를 직접 담아 푸짐한 양과 음식에 진심을 담은 정성 어린 맛으로 주민들에게 꾸준한 사랑받아 온 식당이다.

최육자 대표는 "손님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이웃과 나눔을 이어가는 일이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입암면 경로당 회장단, 환경정비 구슬땀

정읍시 입암면 경로당 노인회장단 약 30여 명은 지난 24일 입암보건지소 앞에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각 마을 경로당 회장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거점을 순회하며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약 1시간 동안 보건지소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손길 덕분에 보건지소 일대는 한결 깔끔한 모습으로 정비되어 주민들에게 큰 효용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올해 첫 '찾아가는 월광포차' 운영... 27일 도통동서

플리마켓·버스킹·가수 유리상자 공연 등 풍성

남원시는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도통동 상가 일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월광포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광포차는 지난 3년여 동안 50여회 이상 운영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도를 얻어온 남원의 대표 야간 즐길거리로, 남원시는 그동안 월광포차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형 야간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해 왔으며, 올해는 그 첫 시작을 도통동 상권거리에서 선보이며 지역상권과 연계한 새로운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도통동 상권거리와 요천변 일대에 식재된 살구나무가 개화 시기마다 아름다운 봄 경관을 연출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지역 특성을 살려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플리마켓과 지역예술인 버스킹 공연, 시민 참여형 '행운의 94 노래방', 초청가수 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월광포차에는 감성 듀오 유리상자를 비롯한 초청 가수들이 참여해 음악과 먹거리,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도통동의 별밤을 더욱 특별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리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과 지역 특산품이 판매되며, 시민 누구나 현장 점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의 94 노래방'은 관람객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계절성과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운영해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